금주의 법구-〈아함경〉
들을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6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60호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평창올림픽 파이팅 8월 5일 조계종 체육인불자회(회장 박종길)가 개최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불자선수들과 스님들, 체육인 불자들이 동계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는 선수 30여명을 비롯한 100여 불자들이 참여해 경기력 향상 명상 등을 소화했다. 〈관련 기사 A5면〉 노덕현 기자

연등달기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불교문화로 올림픽 'Boom Up'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불교계가 뛴다

올림픽 열기 고조 기여
종단협, 100만 연등달기
국제포교사 통역 · 교육
사찰음식, 페이스북 공개

불교콘텐츠 확보 과제
오대산 불교콘텐츠 개발
선수 스토리텔링 · 관리 필요
"1회성 행사 끝나선 안 돼"

'문화올림픽'을 기치로 한 평창올림픽이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교계가 불교문화를 활용한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대회를 계기로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선수 관리부터 법당 운영 체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29개 회원종단에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100만 연등 달기'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강원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가로등이 아닌 대웅전 주불 대형연등을 다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조계종과 천태종 등을 중심으로 전국사찰에 연등 설치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종단협은 9월 6~8일 서울 봉은사서 열리는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서 올림픽을 통한 동북아지역의 화합을 염원할 계획이다. 현재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불교계의 공동선언을 통해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대회가 아닌 지역 평화를 이끄는 장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교우호교류대회 본대회에 앞서 6일 저녁 개최되는 전야제 성격의 합창제서는 평창올림픽 홍보영상 상영과 대규모 연합합창단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보현행원송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9월 6일 경 국제포교사 중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통번역 교육을 실시한다. 국제포교사회는 3월 IOC위원들의 월정사 참배에서도 통역봉사를 맡은 바 있다.

민병원 국제포교사회 사무처장은 "평창올림픽은 국제포교의 또 다른 기회"라며 "3월 행사서 국제포교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현재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가 가능한 15명의 국제포교사들로 팀을 구축한 상태"라고 말했다.

불교문화를 올림픽 기간 홍보하기 위한 작업도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2017불자대상 수상자인 미스코리아 금나나 씨 등이 출연한 강원지역 식재료 활용 사찰음식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사찰음식 페이스북(jogyeorder. templefood)과 블로그(blog.naver. com/templestaygo)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전후 동안 외국인 템플스테이 체험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템플스테이 사찰 확대 운영에 나선다. 평창 월정사, 양양 낙산사, 속초 신흥사, 인제 백담사 등 강원 내 주요사찰(13곳 예정) 및 수도권(9곳 예정)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중심으로 통역 전담 자원봉사자 약 150명을 배치하는 한편, 강원지역 문화관광과 연계된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도 올림픽 기간 동안 춘천박물관과 함께 '강원의 성자와 미소'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상원사 문수보살과 오백 나한 등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다.

하지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하는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국민과 세계적인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여 불교계가 나선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월정사 등 지역사찰이 나서고 있지만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행사 진행에 그쳐서는 안된다. 선수 응원을 넘어 스포츠 명상 등 콘텐츠 개발의 기회로도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릉선수촌 법당 주지 퇴휴 스님은 비인기 종목을 위한 불교 만의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퇴휴 스님은 "올림픽 기간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 종목에만 관심이 몰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수포교를 위해서는 인기 · 비인기를 넘어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자선수들은 또 다른 포교사다. 바이애슬론과 같이 비인기 종목을 불자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불교계가 진행하고, 미담사례도 적극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 윤호섭 · 박아름 기자

선거관리 강화 '공명선거단' 운영

조계종 중앙선관위, 8월 31일 발족 예정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명선거위원단'이 발족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27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관리 방안 논의 후 이 같이 결의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8월 18일까지 교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인을 추천받아 구성하며, 이달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위원단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중앙 · 교구선관위와 각 교구 호법국장 등은 합동워크숍을 통해 선거관리에 따른 업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선관위와 호법부는 공정한 선거를 당부하는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며, 사전 선거운동과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특강도 진행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회의서 금산사 주지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성우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율원분야 보궐선거에 출마한 원명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승가대 교수를 맡고 있는 성우 스님의 겸직금지와 관련 "현행 종법상 상근직 종무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면서 "지방승가대학 교수와 말사주지 등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상근종무원으로 볼 수 있는 교학처장

교구본사별 1인 추천
선거활동 감시 나선다

직을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전문성에 관한 규정 보완을 중앙종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320차 회의서도 종법에 명시된 직능대표 조항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모호함을 지적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종교지도자들 '비핵 메시지' 호소

日 종교대표자회의, 2000여 종교인 참석 토론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핵무기 폐기' 강연자 나서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들이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테러와 빈곤, 핵 문제 등 세계적인 현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일본 종교대표자회의는 불교 · 기독교 · 이슬람교 등 19개국 약 2,000여 명의 종교단체 대표자들을 초청, 8월 3~4일 국립교토국제회관과 비예산 연력사, 장군총 청용전 등지에서 '세계종교자 평화의 기도모임'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종교인들은 연력사에서 핵 폐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등 '비예산 메시지 2017'을 채택했다. 종교지도자들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의 폐기는 노인이 된 피폭자가 생존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강하게 호소해 나가야한다"며 "원자력 이용의 한계를 깊이 자각해야 한다.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에너지의 이용은 미래가 없다. 핵무기와 핵에너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메시지 채택에 앞서 각국 종교지도자들의 강연도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이 '핵무기 폐기와 원자력 문제를 생각한다'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1160호 INDEX

신행 · 복지 A6
파라미타연합회
청소년 국제캠프 현장

테마人 B1 · 2
고양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

